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8.31

나스닥,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효과로 상승 지속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코로나 관련 이슈로 다우지수가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자 재차 상승 전환
- 이후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쓸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여행, 레저, 항공 등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군은 부진을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
- 결국 미 증시는 이런 차별화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혼조 마감
- 다우 -0.16%, 나스닥 +0.90%, S&P500 +0.43%, 러셀2000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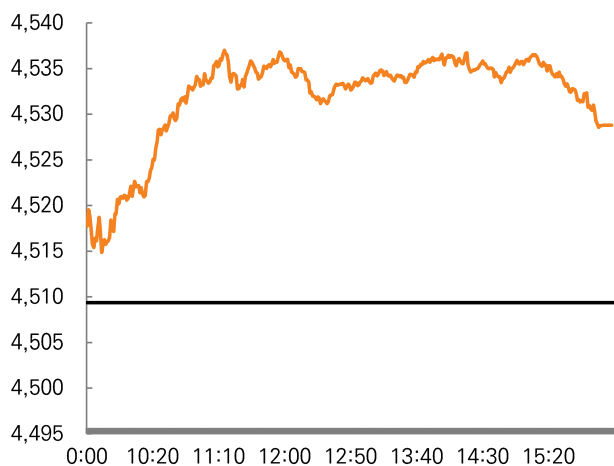
특이 종목

- 애플(+3.04%)은 9월 발표되는 아이폰에 위성 통신 기술 추가 가능성 부각 속 상승
-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 글로벌 스타(+64.34%)는 이러한 소식에 급등
- 아마존(+2.15%), 어펄 홀딩스(+46.67%)와 구매 후 환불 지급 방식 협력 소식에 급등
- 페이스북(+3.64%)은 자사 플랫폼으로 주식 거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 델타항공(-3.88%) 등 항공업종은 코로나 우려 및 허리케인으로 운행 중단 소식에 하락
- 스텔란티스(-1.38%)는 칩 부족으로 유럽 일부 공장 생산 중단 소식에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83%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2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7.1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2% 상승. KOSPI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한국 증시는 미 증시 특징처럼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발표, 금융 및 경제 정상화 관련 기업의 부진, 그자동차 관련 종목의 약세, 애플 상승 요인인 위성 서비스 관련 종목과 애플 관련주 및 코로나 수혜 업종 등에 따라 종목 차별화 전망
- 한편,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등 경제지표에 주목해야 하는데 오늘은 한국 시각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중국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중요.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차별화 장세 속 중국 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에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144.19	+0.33	홍콩항생	25,539.54	+0.52
KOSDAQ	1,031.84	+0.81	영국	7,148.01	휴장
DOW	35,399.84	-0.16	독일	15,887.31	+0.22
NASDAQ	15,265.89	+0.90	프랑스	6,687.30	+0.08
S&P 500	4,528.79	+0.43	스페인	8,867.90	-0.61
상하이종합	3,528.15	+0.17	그리스	929.26	+1.63
일본	27,789.29	+0.54	이탈리아	26,024.27	+0.0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코로나 우려 확산 ②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개별 기업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점. 여기에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며 최근 상승세를 보여왔던 경제 정상화 관련 업종이 부진한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

먼저 코로나 이슈인데 EU가 미국을 안전 여행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이는 미국 방문자들에게 더 엄격한 통제를 할 것이라는 점.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미국인에 대한 검사와 격리를 진행 중이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미국을 안전 국가로 분류해 왔었음. 그러나 EU 가 최근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통제를 단행한 것.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나 최근 상승하던 여행, 레저, 항공 등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군의 하락을 부추긴 요인.

더불어 남아공 발 베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종이 발견 되었으며 일부는 확산과 백신 돌파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 물론 아직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나 델타 변이보다 면역 회피 특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더불어 카니발(-2.96%)은 코로나 초기 대처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승객들로부터 소송에 직면했고,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항공 운행이 일부 중단된 항공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등 개별 기업 이슈 또한 경제 정상화 관련주 부진 요인

한편, 애플(+3.04%)은 TFI 증권사의 미치 귀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13에 저궤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급등. 특히 애플과 관련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인 글로벌스타(+64.34%)는 큰 폭으로 상승.

여기에 아마존(+2.15%)은 핀테크 업체인 어텀 홀딩스(+46.67%)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구매 후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강세. 아직은 파일럿 프로젝트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 본 후 확대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소식으로 아마존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되었으며 어텀 홀딩스 또한 많은 투자 회사들이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 하는 등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 기대가 높은 상태

페이스북(+3.64%)는 고객 대상으로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당장 올해 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새로운 수익 창출 분야에 진출한다는 점이 강세 요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로빈후드(-6.89%)의 하락을 야기. 이는 경쟁 심화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아마존 강세 Vs. 금융주 부진

애플(+3.04%)은 9월 발표되는 아이폰에 위성 통신 기술을 추가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등.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 글로벌 스타(+64.34%)는 이러한 소식에 급등. 아마존(+2.15%)은 어퍼 홀딩스(+46.67%)와 협력해 구매 후 환불 지급 방식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강세. 페이스북(+3.64%)은 자사 플랫폼으로 개별 주식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로빈후드(-6.89%)는 경쟁 심화 우려로 하락. NRX파마(+4.93%)는 코로나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 대한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자 강세.

카니발(-2.96%)은 코로나 초기 승객들에 대해 대처가 미흡했다며 소송에 직면하자 하락. 델타항공(-3.88%), 사우스웨스트항공(-3.36%)은 코로나 우려 및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항공 운항 중단 소식에 하락. 스텔란티스(-1.38%)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유럽 일부 공장이 생산 중단 되었다는 소식에 하락. GM(-1.27%), 포드(-1.95%) 등 자동차 업종도 동반 하락. 중국 게임회사인 넷이즈(-3.39%)는 중국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자 하락. JP모건(-1.60%), BOA(-1.95%)는 국채 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 캐피탈 원(-6.04%)은 올해 들어 급등했으나 과도 했으며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하락. 키코프(-2.58%) 등도 하락. 모더나(-3.02%)는 백신 오염 문제로 일본에서 접종 중단 소식에 하락. 줌 비디오(+1.96%)는 시간 외로 6%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65	대형 가치주 ETF (IVE)	-0.36
에너지섹터 ETF (OIH)	-2.68	중형 가치주 ETF (IWS)	-0.36
소매업체 ETF (XRT)	+0.18	소형 가치주 ETF (IWN)	-0.63
온라인소매 ETF (IBUY)	+0.60	대형 성장주 ETF (VUG)	+1.00
금융섹터 ETF (XLF)	-1.41	중형 성장주 ETF (IWP)	+0.25
기술섹터 ETF (XLK)	+1.09	소형 성장주 ETF (IWO)	-0.2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75	배당주 ETF (DVY)	-0.53
인터넷업체 ETF (FDN)	+0.94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27
리츠업체 ETF (XLRE)	+1.22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40
주택건설업체 ETF (XHB)	+0.10	미국 국채 ETF (IEF)	+0.20
바이오섹터 ETF (IBB)	+0.10	하이일드 ETF (JNK)	+0.11
헬스케어 ETF (XLV)	+0.56	물가연동채 ETF (TIP)	-0.02
곡물 ETF (DBA)	+0.36	Long/Short ETF (BTAL)	+1.06
반도체 ETF (SMH)	+0.32	모멘텀 ETF (MTUM)	-0.2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부동산	296.05	+1.15	+1.22	+2.07
IT	2,801.93	+1.09	+1.25	+4.41
경기소비재	1,462.61	+0.92	+2.17	+1.38
통신	286.17	+0.74	+2.27	+4.91
헬스케어	1,575.60	+0.61	-0.56	+2.23
필수소비재	746.86	+0.53	-0.48	+1.40
유틸리티	347.19	+0.18	-0.63	+2.83
산업재	884.13	-0.16	+1.24	+1.95
소재	538.21	-0.18	+1.55	+3.27
에너지	364.92	-1.16	+2.24	-1.46
금융	637.82	-1.47	+1.16	+5.1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속 중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0.83%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2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7.1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2% 상승. KOSPI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1% 넘게 상승 출발했으나, 결국 연준의 올해 테이퍼링 시행이 기정 사실화 됐다는 사실에 주목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며 장 중 한때 하락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이다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호재성 재료에 기반해 나스닥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 종목 차별화가 진행된 점과 코로나 이슈가 재 부각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미 증시 특징처럼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발표에 따른 관련주 부진과 금융 및 경제 정상화 관련 기업의 부진,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의 약세, 애플 상승 요인인 위성 서비스 관련 종목과 애플 관련주 및 코로나 수혜 업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등 경제지표에 주목해야 하는데 오늘은 한국 시각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중국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중요. 지난달 보다 소폭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 이슈가 지표에 미친 영향에 따라 기준선인 50을 하회할 수 있기 때문.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경우 경기 둔화 이슈가 유입되며 시장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될 수 있으나, 이를 상회할 경우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차별화 장세 속 중국 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에 주목하며 이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제조업지표 부진

미국 7월 잠정주택 매매는 지난달 발표(mom -2.0%) 보다 개선된 전월 대비 1.8% 감소를 보였으나 예상(mom +0.4%) 보다는 부진

8월 델러스 연은 지수는 지난달 발표(27.3)는 물론 예상(25.0)을 크게 하회한 9.0에 그침.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생산지수(31.0→20.8), 신규주문(25.8→10.7), 고용(23.7→21.9)은 물론 6개월 후 기업 활동 지수는 37.1에서 15.1로 크게 둔화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FICC, 방향성 없는 보합권 등락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일부 정유 시설이 중단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하기도 했음. 더불어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자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산유량 증가 우려까지 유입된 점도 하락 요인. 그렇지만, OPEC+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감산량 축소 발표를 연기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결국 상승 전환

달러화는 파월 연준의 발언을 소화하며 보합권 등락. 유로화는 유로존 8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119.0에서 117.5로 하락하는 등 부진한 지표를 발표하자 한 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보합권 등락.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등 일부 신흥국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코로나 우려 여파로 하락. 더불어 지난 금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하락세가 이어진 점도 특징. 다만, 연준이 테이퍼링을 연내 시행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한 점을 감안 하락폭은 제한. 더 나아가 전일 아시아 시장의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일본의 7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4%로 발표된 점도 하락 제한 요인

금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영국 LME 시장 휴장. 옥수수는 수확량이 양호한 가운데 우수 평가가 지난주 60%에서 59%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콩은 56% 유지 되었으나 지난 주말 내린 비로 충분한 수분 함유에 따른 작황 개선 기대로 하락. 밀은 77%에서 89%로 품질 평가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캐나다 생산량 추정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3% 하락, 철근은 1.04%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21	+0.68	+5.44	Dollar Index	92.687	+0.00	-0.29
브렌트유	73.41	+0.98	+6.78	EUR/USD	1.1800	+0.04	+0.47
금	1,812.20	-0.40	+0.33	USD/JPY	109.92	+0.07	+0.20
은	24.01	-0.43	+1.28	GBP/USD	1.3759	-0.04	+0.29
알루미늄	2,649.50	휴장	+1.83	USD/CHF	0.9169	+0.61	+0.49
전기동	9,410.00	휴장	+1.47	AUD/USD	0.7295	-0.23	+1.19
아연	3,002.00	휴장	+2.49	USD/CAD	1.2606	-0.11	-0.38
옥수수	542.75	-1.99	+1.35	USD/BRL	5.1881	-0.30	-3.58
밀	723.50	-1.23	-1.36	USD/CNH	6.4657	+0.05	-0.18
대두	1,303.25	-1.51	+0.81	USD/KRW	1,167.00	-0.19	-0.57
커피	199.90	+4.01	+9.93	USD/KRW NDF1M	1,167.18	+0.42	-0.1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280	-2.68	+2.85	스페인	0.275	-1.80	+4.50
한국	1.905	-3.20	+1.00	포르투갈	0.152	-1.90	+2.90
일본	0.022	-0.50	+0.10	그리스	0.688	0.00	+11.40
독일	-0.439	-1.60	+4.20	이탈리아	0.609	-2.20	+2.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